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3. 9. 4.(수) 11:00

◆ 장 소 : 금천구청 9층 대회의실

♦ 참 석

- 위원장(부구청장), 문길수부위원장, 김영동위원, 이미숙위원, 서복성위원, 안치용위원, 최원영위원, 오유석위원, 류지원위원, 구자현위원

♦ 안 건

-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실적보고 / 프로그램 활성화 및 홍보 방안 논의

□ 위원 발언 내용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체험관이 개관하고 처음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인 만큼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잘 운영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간사가 체험관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체험관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관련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입니다.
- 시설현황입니다.

금천구 벚꽃로44길 17, 가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의 259.6㎡입니다. 쪽방 6개, 기획영상실, 영상전시실, 공동세면장, 순이의 방, 가리봉상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운영현황입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월요일은 정기휴관일입니다. 근무인원은 기간제근로자 2명, 공공근로 1명, 자원봉사자 5명입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수강료는 체험학습비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 운영실적입니다.

개관은 2013년 5월 2일에 개관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였고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dvn<디지털밸리뉴스>와 홍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인 주식회사 모렌소프트에 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시행하여 체험관소개, 관람 및 체험학습 예약, 후기 작성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금년 10월 15일 완료예정입니다.

- 방문객 및 수입액 현황입니다.
 - 개관 후 8월 말까지의 방문객은 일반관람객 1,012명, 체험학습 참여자 57명, 취재방문 26명, 기타 33명으로 총 1,128명이며 수입액은 총 114,000원입니다.
- 촬영은 경인여대 졸업영상 "벌집 아시나요", 웅진 싱크빅 생각쟁이 등이고 단체관람은 KDI 경제정보 센터 고등학교 교사(60명), 금천문화역사포럼(50명), 부산광역시 진구의회 위원(6명) 등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그동안 체험관 방문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방문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건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체험관 명칭은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금천 순이의 집">이었는데 개관식을 하는 과정에서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이라고만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진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칭문제가 먼저 정리 되어야 추진할수 있는 프로그램과 홍보방안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 "순이의 집"이 빠진 "노동자생활체험관"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초등학교 교사 등의 거부감으로 협조가 쉽지 않아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명칭공모를 한다는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먼저 이 명칭 부분에 대해 정리를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

- 먼저 의견을 다 들어보고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OOO 위원〉

○ "순이의 집"이란 명칭이 어떻게 보면 정겹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전에 공순이 공돌이라고 비하하여 부르던 것이 생각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OO 위원〉

○ "순이의 집"이란 명칭을 그대로 쓰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동자생활체험관"이라는 명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명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끝나야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홍보방안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 현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만 운영방향은 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입장 입니다. 위원님께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의견들을 제시해주시고 그것에 대해 하나하나 논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000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방문객 실적을 보면 일반관람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 방문객은 없다는 뜻 인가요?

⟨○○○ 위원⟩

○ 체험학습을 하지 않고 "관람"만을 한 방문객을 뜻합니다. 체험학습을 하게 되면 수강료를 납부하는데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은 방문객을 일반관람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000 위원)

○ 제 생각에는 분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 성인/학생, 단체/개인 이런 식으로 말씀이십니까?

〈OOO 위원〉

○ 예, 성인/학생, 단체/개인도 필요하고 금천구인지 타지역인지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000 위원)

○ 예,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고 이 자료에서는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합쳐서 작성하였습니다.

〈OOO 위원〉

- 처음 저희가 용역을 받아 기획하였을 때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이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운영위원이 교육청 방문·협조 요청 등의 역할을 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을 짧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현재 각 학교에 홍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면 학교에 직접 홍보를 다닐 예정입니다. 현재는 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미비한 실정이고 앞으로 청소년 복지관에서 6주간에 걸쳐 체험학습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 체험관의 현재 목적은 운영을 잘 해서 방문객을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체험관을 건립 하였을 때 목표로 잡은 인원과 수입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 목표에 많이 미달된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셨습니까?

(000 위원)

○ 정확한 분석을 하진 못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체험프로그램이 미비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 래도 학생들이 주 타깃인데 학교에서 원하는 체험프로그램 구성을 채우지 못하니 학생들의 방문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 안건에 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000 위원)

○ 학생은 금천구 관내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 예, 전체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체험관과 관내 기업체, 공장들의 연계입니다. 예를 들어 ㈜마리오와 연계하여 학생들에게 방직공장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000 위원)

○ 방직공장은 학생들의 직업 체험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000 위원)

○ 하지만 옛 구로공단 지역이 봉제 사업이 중심이었고 마리오의 방직공장도 현재는 모두 기계화되어 실질적으로 근무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어 체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 동선이 좀 멀지 않나요?

(000 위원)

○ 그리 멀진 않고요, 또 다른 업체와의 연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체험관 공간이 협소하여 한 반의 학생들이 모두 방문해서 진행하는 체험학습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체험학습 담당 교사들과의 자리를 마련 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

○ 학교의 체험학습은 학년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체험관과 연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원장〉

- 학생들은 사회나 역사에 관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체험관에서 체험을 하고 갔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람객 유치에만 집중하다보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 또한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체험관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코스들을 개발하는데 노력 중인데 아무래도 관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 시야가 좁은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 당장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무엇보다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이 지역의 역사와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과거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 하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제대로 된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노동자에게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체험관이 맞게 건립되었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당시의 역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체험관 건립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다양한 관점과 입장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OOO 위원〉

- 많은 관람객 유치가 목적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쪽방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성인들이 오히려 학생들보다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체험관 하루 관람하는 것보다 주변에 아직도 예전의 모습이 남아있는 업체와 연계하여 체험을 시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 현재 기업인들도 과거 산업단지가 발전해온 역사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사는 구로공단이 중심이 되는데 정작 그 당시 활동하셨던 분들은 배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정작 중요한 당사자가 빠지고 새로 온 분들이 모양내기 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 또한 학생들의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면 체험관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근로복지관의 학생들이 많이 엠티를 옵니다. 이 복지관의 교육과정과 체험관을 연계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와의 연계도 좋지만 청소년 연맹하고 연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단순히 쪽방체험 하는 것보다 경제성장의 한 부분으로 역사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의 빠른 성장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이 급성장 하면서 과거에 그런 노동탄압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외국인들이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체험관 하나로 사람을 모으는 것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역사성을 보존해나가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노동자의 입장에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OOO 위원〉

- 역사기념사업은 인내를 갖고 진행해야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처음 운영위원회가 열렸으니 이제 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동조합의 교육과정에 체험관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고 방송콘텐츠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캠프활동에 구청에서 협조 요청하여 모은 교사들을 참여시켜(비용은 재단에서 지원) 캠프 과정에 체험관 관람을 포함하여 이 교사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해서 홍보가 널리 되고 나아가 체험관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모여야 구로공단 역사기념 사업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 일단 오고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많이 알려져야 좀 더 의미가 부여되고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일단 시작이니까 인내를 갖고 잘 운영해 나갈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시대는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구로공단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논란은 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한쪽의 입장만 볼 것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이 모두 절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시간의 인내도 필요하지만 관점의 인내도 필요합니다. 서로 100%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절충안을 내어 역사기념사업을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명칭은 OOO위원님 입장에 동의합니다. 처음에 "금천 순이의 집"이란 명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명칭이 왜 없어졌는지 궁금하고요. 노동자란 용어 자체가 분명히 정확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왜곡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거면 "금천 순이의 집"이란 부제도 살려서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구로공단 역사기념사업은 금천구청이 시작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약 15년 전부터 구로공단 지역을 보존하고 재현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가 민·관·학 연계하여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고 그 첫걸음으로 시의 보조를 받아 체험관 건립을 하였으며 나아가 산업단지 전체를 관광코스화하는 것을 구상하였습니다. 처음엔 보존하고 재현하는 것에만 의의를 두고 체험관을 건립하였는데 개관하고 보니 방문객이 많지 않아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 또한 시작을 녹색협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왜 각계각층을 두루 참여시키지 않았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다가 우리가 시작하고 나니 여기 저기서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명칭이 바뀐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체험관 개관식 전 "금천 순이의 집"에서 "순이"가 여성을 비하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관식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 위하여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 체험관은 구로공단의 보존을 위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작한 첫 번째 사업이고 향후에는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역사기념사업을 이루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구청이 주도하여 추진 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향후 재단법인이 설립 예정인데 이 법인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민간에서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우선은 시작에 불과하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민간이나 시 또는 국가에서 바톤을 이어받아 역사기념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00 위원)

○ 역사기념사업에 대해 먼저 고민을 하신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구로공단의 역사는 누구하나의 관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부분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있지만 지금은 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의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두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구로공단에 근무했던 노동자들이 "왜 나의 역사가 왜곡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하며 그 당사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역사기념사업이 더 잘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000 위원)

○ 조합에서 조합원들을 모시고 와서 체험관을 관람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문제라고 말씀 하시는 건가요?

○ 저는 체험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노동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불만도 제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000 위원)

○ 각계각층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무도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수밖에 없었는데 추진을 하고 나니 여러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5개월간 운영 해 보니 실적이 없어 조급한 마음이 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며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노총의 참여를 끝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불만이 제기되었던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참여의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또한 그 당시 벌집에 살았던 분들이 체험관을 보고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참여하려면 그런 것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반영되지 않은 의견이 있다면 앞으로 고쳐가면서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참여의 폭을 넓히려다 보니 부딪히는 문제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000 위원)

- 구로공단의 역사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진을 하려다 보면 예산부터 시작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 또한 노동자의 입장에만 집중을 하면 일반 대중의 관심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현재는 기업인 들도 노동자들의 배제를 원하지 않고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현재의 모습이 되기까지 밑바탕이 되었던 노력들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 모일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지금 당장 무언가를 결정하는 회의가 되긴 어렵고요, 앞으로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해서 의미 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좀 더 의미 있는 사업이 되게끔 하자는 취지인데 시작한 일들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들은 서로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 금천 순이의 집이란 명칭에 다들 거부감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순이라는 단어가 현재의 시점에서 여성비하가 되는지요?

(000 위원)

○ 그 언어는 충분히 역사적인 실체가 있으므로 그 자체가 남겨야 될 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에서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반드시 노동자생활체험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병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이의 집"이라고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당시 당사자들이 그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 그 단어가 실재했던 단어임에 틀림없고 연구 용역 결과와 구청장 방침을 토대로 결정된 명칭이라면 그 명칭의 사용여부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노동자생활체험관과 "금천 순이의 집"을 병기하여 사용하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000 위원)

○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순이의 집이란 명칭이 나온 것입니다.

(000 위원)

○ 저도 운영위원회에서 의견만 나오고 결정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 급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 운영위원회가 개최될 때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천 순이의 집"이라고 하면 금천구로 영역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천이라는 단어는 붙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 우리가 역사적인 의미에서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구청에서도 운영 위원들을 활용해서 운영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칭 공모도 그런 의미 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공청회에서 다 수렴하지 못한 의견들을 우리 위원 들이 담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좀 더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명칭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어려우므로 그 동안에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경과를 다음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알려드려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000 위원〉

○ 명칭이 중요한 이유는 한번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모를 하던 의견 수렴을 하던 분명하게 후속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000 위원〉

○ "구로공단"이라는 명칭이 붙다보니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구로구 관할인 것처럼 보여 정작 우리구에는 의견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금천 순이의 집"이라고 하면 금천구의 소재를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부제를 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예, 일단 의견을 수렴해보죠.

〈OOO 위원〉

○ 저는 금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에 찬성합니다.

(000 위원)

○ 명칭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민간주도로 누구든지 나서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예, 일단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듣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있을 회의에도 열심히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들려주시고 더욱 발전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